

남해안 별신굿



김형근 문학박사

아리랑, 김치, 택견, 판소리, 영산재..... 이들 문화는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이다. 사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은 2001년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종목에 이른다. ‘어촌문화’ 그리고 ‘무속’이라는 관점에서 주목되는 유산이 있다면 2002년의 강릉단오제, 2009년의 제주 칠머리 영등굿이다. 이 두 유산은 무당이 중심되어 펼쳐지는 마을굿이다. 세월이 여류하여 과거 미신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있던 ‘무속’, ‘굿’, ‘무당’이라는 키워드들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되고, 더 나아가 세계의 무형문화재라 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까지 등재되고 있다. 살다 보면 이런 좋은 날도 있으련만 너무도 그 시절이 길었을까,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였을까, 너무도 많은 우리의 무형유산들이 사라져 갔고, 문화재로 지정받았지만 예전 그 짱짱했던 기예능이 온전하게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남해안 별신굿’도 위태위태한 외줄 위에 오늘도 그렇게 서 있다.

할머니와 어린 손자, 할머니는 무당이였다.

새마을과 미신타파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갈 즈음이었다. 한 아이가 울먹이며 포악스럽게 그의 왕고모(고모할머니)에게 마지막 통첩을 했다. 그렇다. 그의 고모할머니는 무녀였다. 아니 그의 집안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대대로 무업을 업으로 삼았던 세습무 집안이었다. 조선총독부 시절 한국의 민속을 조사했던 일본인 학자가 조사한 기록에 그의 증조부, 증조모가 등장했을 정도로 경상남도 거제, 통영 일대에선 가장 잘나가는 무당 집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 아니었다. 벗어나고픈 굴레였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무당새끼’라며 소위 집단 괴롭힘을 자행하였고, 집에 있으면 ‘미신타파’라는 소리와 함께 집안으로 돌들이 날아오기 일쑤였다. 굿이 많았던 시절 비교적 ‘쌀밥’ 떨어지지 않고 살 수는 있었지만, 어찌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살 수 있으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남들에게 주목되지 않고 남들만큼만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이 그 아이가 가졌던 너무도 간절한 소망이었다.

남에게 못할 짓도 아닌데, 그쯤의 손가락질이야 어떠하리. 궂은일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을까. 할머니는 잠시간 주위에 소문나지 않게 궂일을 계속하였고, 손주는 더이상 이런 꼴 보기 싫어 집안 대대로 해왔던 궂판을 떠나 도회지에 나가 이일 저일 전전하게 된다.

시대가 달라졌다. 서울에서 교수들이 한반도의 끝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통영까지 이 할머니를 추적하여 내려온다. 거제, 통영, 남해 등 경상남도 남해안의 마지막 남은 세습무, 최고의 춤과 구성진 노래, 여러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듬어내는 따뜻한 인성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단연 이 지역 최고의 무녀 바로 '정모연'이었다. 춤, 노래, 무엇 하나 빠지지 않은 무녀 중의 큰 무녀, 이른바 대모(大母, 이 지역에서는 보통 무녀를 지무 또는 지모라고 부른다. 그 지모들 사이에서도 가장 궂의 기량이 뛰어난 이를 대모라 부른다)였다. 그가 궂판에 서면 볼거리 없던 시절 단연 최고의 구경거리였다.

“나는 더이상 궂 안합니다.”

서해안에도, 동해안에도, 제주에도, 해양 지역 어디에서든 그 지역 마을과 사람들, 그리고 바다 생업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오늘날과 달리 그 신앙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1980년대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러한 민속신앙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고, 학자들의 현장조사와 국가의 문화재 지정 노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해양민속에 대한 연구를 일평생 하였고, 남해안 별신굿을 발굴한 하효길 선생의 증언에 따르자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미 거제, 통영 중심의 남해안 궂은 더이상 전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런데 믿을만한 소식에 의하여 마지막 한 사람의 세습무녀가 살아있고, 여전히 소문 안 나게 궂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달음에 통영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세상 달라진 사정은 아직 한반도 최남단 이곳까지 전해지지 않았던 모양이었나 보다. 정모연의 집에 도착하고 운명적인 첫 대면을 하였지만,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은 채 손사래다.

완강했던 정모연의 마음이 점차 열리기 시작했다. 계속적인 설득 작업 끝에 그가 진행하는 마을궂에 학자의 발길이 허용되게 되었다. 통영 욱지면 서산리 갈도(葛島) 속칭 '치리섬', 거제 오수리 죽림마을, 양화, 구조라, 수산, 통영 죽도 등에서의 별신궂들을 학자들은 목격하게 된다. 또한 정모연과 같이 궂을 하는 세습 남자 악사(보통 세습무의 경우 궂은 부인네들이 무녀가 되고, 남편들은 악사를 맡는다. 남해안에서는 궂을 하는 무녀를 '지모' 또는 '승방'이라고 부르고, 악사를 '산이(사니)', '고인수' 등으로 부른다.) 박복개, 박복률 형제도 만나게 된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문화가 아직까지 위태하나마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가슴이 벅찼다.

감격도 잠시였다. 1986년 마지막 남자 세습 악사인 박복개, 박복률 형제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 '남해안 별신궂'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1987년이니, '인간문화재'라는 일평생 모진 손찌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나름의 명예를 받지 못한 채 저세상으로 떠난 것이다. 홀로 남은 정모연은 궂이 싫다며 떠나버린 조카손자 정영만을 강



▶ 궂의 막간에 잠시 춤을 추는 마을 어르신들

하게 설득시킨다. 이제 우리도 문화재가 되었고, 어찌 되었든 우리 집안의 맥을 누군가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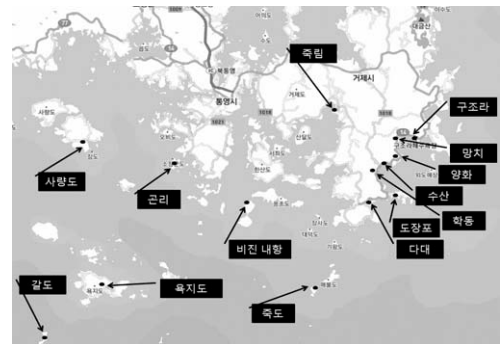
정영만은 어렸을 적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신청(神廳, 세습무들의 지역 연합회 성격이다. 굿에서 필요한 음악, 무용, 무가 등의 학습을 하며, 세습무 상호 간의 친목, 선대 선생들에 대한 제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을 놀이터 삼아 어릴 적 다녔고, 실제 악기를 배웠다. ‘핏줄은 못 속인다’고 그 재능 또한 특출났다. 그러나 예민한 시기,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냉대받는 것이 서럽고 서러워 굿어 죽더라도 굿해서 밥 먹고 살진 않겠다 다짐했던 것이다. 간절한 왕고모의 설득 끝에 결국 집안의 업을 끊지 못하여 착실히 굿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왕고모 정모연 마저 1989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결국 홀로 남은 정영만은 힘겹게 힘겹게 제자들을 키우며 굿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 두 마을밖에 남지 않은 남해안 별신굿

민속학계에서 ‘남해안굿’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경상남도 거제, 통영 일대를 가리킨다. 그래서 전라남도 남해안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화재 지정 당시 동해안 별신굿, 서해안 배연신굿이 먼저 지정되었고, 남해안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였던 모양이다. ‘별신굿’이라는 명칭은 아직 그 구체적인 개념이 설명되지 않는다. 그저 마을굿의 별칭으로 생각하고 있다.

별신굿이라는 명칭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된다. 가장 유명한 곳이 강원도부터 부산에 이르는 ‘동해안 별신굿’이다. 충청도에도 여러 곳에서 별신제가 존재한다. ‘은산 별신제(충남 부여)’, ‘오티 별신제(충북 제천)’, ‘목계 별신제(충북 충주)’, 경상남도 남해안인 거제, 통영에서도 ‘위만제, 위신제, 별신제’ 등으로 부른다. 전라남도의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에서도 ‘별신제’라 부른다.

남해안 별신굿의 지역은 거제와 통영이 중심이다. 경상남도 남해 또한 거제와 통영과 비슷한 별신굿이 분명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한 시기에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거제와 통영 또한 1968년 이 지역의 민속조사 시에는 통영 사랑도, 거제 학동, 수산, 죽림포, 구조라리, 양화, 다대, 망



▶ 남해안 별신굿을 했다고 알려진 마을들



▶ 통영 죽도 별신굿의 시석



▶ 통영 죽도 별신굿에서 굿을 하는 승방(무녀)

치, 도장포 등의 지역에서 별신굿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사는 별신굿의 조사가 아닌 민속 현황 조사 정도여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는 1980년에 이르러서야 진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면 통영 갈도, 거제 수산, 양화, 구조라, 죽림 등 4개 마을만 조사되고 있어 이미 10여 년 사이에 굿이 사라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 오직 거제 오수리 죽림마을과 통영 죽도만이 별신굿을 하는 마을이다. 이들 마을은 3년마다(만 2년마다) 굿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남해안 별신굿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죽도 같은 경우 섬이기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오로지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고 향후 5~10년 후에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양한 인간의 소원을 풀어주는, 별신굿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 온 일본인 학자들이 한국의 민속들을 샅샅이 기록하게 된다. 1932년 秋葉隆이 이곳 남해안 지역에 왔고, 그 당시 가장 잘나가는 이 지역 무당을 인터뷰한다. 그 이름이 정철주. 정영만의 증조부이다. 그를 통해 짧게나마 남해안 별신굿이 무엇인지 일본인 학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 행하는 별신굿은, 여러 명의 무녀와 무악을 담당하는 무부에 의해 행해진다. 먼저 전야제로서 당산나무가 있는 곳에서 천왕대신을 제사 지내고 당산굿을 한다. 이것을 들맞이라 부르고 있다.

다음날은 날이 밝지 않았을 무렵에 산에 올라가서 산신을 제사 지내고, 아침 식사 후 장생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공물을 올리고 징을 올린다. 그것은 별신장군을 제사 지내고 잡귀와 객귀를 물리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잔교로 가서 동서남북의 용왕을 제사 지내고, 이어서 동네 우물의 용신을 제사 지낸다.

대체적으로 저녁나절이 되면 저녁 식사 후 마침내 별신대가 있는 곳으로 모여서 큰굿을 하고, 동대부라 칭하는 마을의 주신을 제사 지낸다. 그것은 부락의 수호신이다. 제단에는 병풍을 쳐두고 공양물을 올린다. 촛불을 켜고 먼저 주무가 절을 하면, 여러 무녀, 무부가 무가 무무를 행한다. 밤을 새워서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하고, 다음날 낮 무렵이 되면 다시 음식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잡귀에게 물밥을 주며 굿을 끝낸다. 마을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秋葉隆(심우성 역), 『조선민속지』, 동문선, 1993. 273-274쪽.]

위의 기록에서 보이는 남해안 별신굿의 모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굿을 하기로 정해진 날의 전날에 굿을 하는 이들이 마을에 들어선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마을 당산나무 앞에서 하는 들맞이 당산굿이다. 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는 당산신(堂山神)에게 이른바 ‘신고’를 하는 것이다.

굿을 하는 날이 되면 해가 뜨기 전 산신당이 있는 마을 산으로 올라간다. 그곳에는 산제당, 산신당이 있



▶ 거제 죽림별신굿 굿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띠배를 띄워 보내는 모습



▶ 풍어를 기원하는 깃발

다. 그 이후 산의 중턱, 그리고 마을의 경계에서 있는 장승들, 동네 우물 등 마을 여기저기를 퍼레이드하며 중요한 곳에서는 간단한 고사를 드린다. 이것을 ‘골매기굿’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골매기굿의 마지막에 갯가나 선창가로 가서 ‘개를 먹인다’라고 말하는 용왕고사를 지낸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마을에 임시로 만들어진 굿당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굿을 진행하게 된다.



▶ 거제 죽림별신굿

본격적인 굿은 부정함을 가시는 ‘부정굿’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주관하는 신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대접하고, 또 신앙민들의 소원들을 빌게 된다. ‘가망굿’에는 가망신을 초청하는데 가망은 이 마을의 터를 잡고 일궈낸 마을 조상들을 위한 굿이다. ‘제석굿’에는 바람의 신인 영등제석을 위한다. 바다 생업이나 농업을 하는 데 있어 ‘날씨’라는 조건은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낭굿’의 서낭은 고개, 마을을 지켜주는 ‘서낭신’, 또 바다의 생업이나 배(어선)을 지켜주는 ‘배서낭’ 등을 위한 굿거리이다. 그 다음의 굿이 남해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굿인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큰굿’이라고 부른다. 큰굿의 중심에는 지동굿과 손님굿이 있다. 지동굿은 마을의 중요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지동궐’을 굿판에 안치하여 치러지며 주요하게 이 마을을 태동시킨 동대부신령을 위한 굿이라고 말한다. 손님굿은 ‘손님’ 즉, 천연두, 마마신을 위한 굿거리이다. 오늘날은 더 이상 천연두, 마마라는 질병이 없음에도 마치 세월의 퇴적층처럼 여전히 굿의 관습적 전통 속에 손님굿은 살아있다.

남해안 별신굿이 이채로운 점은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무가들이 많이 불려진다. 다른 지역의 마을굿은 축제적인, 무척 밝은 모습으로 진행된다면, 남해안 별신굿의 큰굿의 후반부에는 죽은 영혼들을 위한 다양한 축원 무가들이 불려진다. 굿의 가장 마지막은 대접받지 못하고 굿이 끝나기를 기다린 잡귀잡신을 모두 불러모아 대접하는 시석(거리굿)을 한다. 거제 죽림 마을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석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띠배를 만들어 마을의 제액을 태워 멀리 띄워 보내는 의식을 오늘날도 하고 있다.

굿은 신앙민들의 안녕과 풍요를 주는 신들에 대한 일종의 헌금 또는 세금이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에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고, 정성을 바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고, 종교의 다양화로 인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허구’이고, 그래서 미신(未信)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엄연히 지금도 그들과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는 실존이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 살아생전에는 이런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다. 굿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생업 활동을 못하고 있는 이들이 태반이다. 굿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 없이 굿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게다가 굿상을 차리고, 이일 저일 여러 허드렛일을 할 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들 지역에서는 70세 정도가 가장 젊은 축에 속할 정도이다. 힘겹게 힘겹게 여기까지 버텨온 것도 참 대견스럽고 반가운 일이나 더 지속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